

▶ 特 輯 - 壬午軍亂 110 周年紀念, 壬午軍亂을 해부한다

## 壬午軍亂 日誌

權 五 榮

(韓國精神文化研究院 編修員)

1882년 6월 5일(陰)

· 高宗 · 洪淳穆, 舊訓鍊都監軍卒의 軍료문제에 대하여 談話. 일전에 훈련도감군졸, 응당 받아야 할 곡식이 섬이 완전히 차지 않았으며 열세달 미지급 軍료를 한달조로 분급한 것 조차 겨가 섞이어 軍졸들 불평 토로. 구훈련도감 砲手 金春永 · 柳卜萬 · 鄭義吉 · 姜命俊 등, 선혜청 庫直 구다. 宣惠廳堂上 閱謙鎬, 軍관에 명령하여 軍병 중의 주동자 체포케 함. 김춘영 · 유복만 등 4 · 5명 捕盜廳에 연행, 이에 김춘영의 부 金長孫과 유복만의 동생 柳春萬 주동, 투옥된 軍병 구명운동 전개. 김장손, 통문 만들고 유춘만 狀頭가 되어 武衛各營에 전달(承政院日記 · 備邊司謄錄 · 高宗實錄 · 壬午大逆不道罪人長孫等鞠案 · 癸未大逆不道罪人春永永植等鞠案).

6월 8일

- 김장손·유춘만, 무위영 군병 이끌고 무위대장 李景夏집으로 몰려가 민겸호의 불법과 동료의 억울한 사정 호소. 이어 군병들, 안국동 민겸호집으로 행진. 도중에 많은 민중들 합세. 김장손·유춘만 등, 민씨정권의 보복 당하기 전에 척족타도하는 편이 상책이라는 의견 모으고 대원군에게 진정한 뒤 진퇴결정기로 하고 雲峴宮으로 몰려감(近代日鮮關係の研究·近代朝鮮外交史·한국사 16 참고).
- 대원군, 무위영군졸 張順吉 등에 명하여 길으로 曉諭宣撫하는 태도 취하는 한편 김장손·유춘만 등에게 밀게 지령. 또한 심복 許煜을 시켜 군복으로 변장케 함. 군민일대, 東別營의 各色庫 부수고 環刀·油衫 탈취. 군기고 부수고 조총·환도 탈취. 포도청 欄入. 이어 의금부 습격. 白樂寬 등 죄수들 석방. 다른 일대, 경기감영 습격, 군기고 부수고 군기 훔침. 또 다른 일대, 閔台鎬를 위시한 칙신 및 개화파관료의 집 습격 파괴(승정원일기·近代日鮮關係の研究·近代朝鮮外交史·한국사 16 참고).
- 日本公使館 포위습격. 일본인 교련교관 堀本禮造 陸軍工兵少尉·日本陸軍語學生 및 外務省 巡查 등 살해(近代日鮮關係の研究.)
- 무위대장 이경하·都捧所堂上 沈舜澤·선혜청당상 민겸호 파직, 무위대장 후임으로 대원군의 장자 判宗正卿 李載冕 임명.(승정원일기·고종실록·日省錄·비변사등록·政治日記·本朝紀事·從政年表·梅泉野錄·近代日鮮關係の研究).
- 辦辦公使 花房義質, 領事兼外務書記官 近藤眞鋤·公使館武官 陸軍歩兵少尉 水野勝毅 등 공관원 28명을 독려 방어에 힘씀. 방어 불가능하자 海軍軍醫 佐川晃 등에게 명령하여 공사관 불지르게 한 다음 기밀서류 불속에 넣고 공사관 탈출(승정원일기·일성록·종정연표·日本外交文書).

6월 10일

- 일본공사일행 인천도착. 영국측량선 프라잉 피시호(The Fling Fish : 飛魚號)에 의탁 長崎로 항발. 고종에게 陳奏書 올림 (舊韓國 外交文書 · 日本外交文書).
- 의금부 · 형조, 島配以下 죄인 모두 석방. 南間囚죄인 백낙관 특별 석방 (승정원일기).
- 護軍 閔昌植 피살 (고종실록 · 정치일기 · 본조기사).
- 領敦寧府事 興寅君 李最應 살해. 군병, 창덕궁 돈화문 육박 犯闕. 고종, 사태수습 위하여 대원군 入侍 명함. 대원군 · 驪興府大夫人 閔氏, 장자 무위대장 이재면 데리고 입궐. 군병들, 선혜청당상 민겸호 · 경기관찰사 金輔鉉 살해 (近代日鮮關係の研究 · 近代朝鮮外交史 · 한국사 16참고).
- 민비, 武藝別監 洪在義 (啓薰) 도움으로 창덕궁을 가까스로 빠져나와 花開洞의 司禦 尹泰駿집에 潛御. 당시 陪從은 翊贊 閔應植 · 進士 閔肯植 · 사어 윤태준 (승정원일기 · 일성록 · 고종실록).
- 왕명으로 지금부터 대소공무는 대원군에게 보고, 결재받으라 (정치일기)고 함으로써 대원군 사실상 정권 장악.
- 고종, 전교 내려 曉諭. 무위영 訓局으로 칭함. 五軍營 복설. 統理 機務衙門 혁파 三軍府로 칭함 (승정원일기).
- 대원군, 민비 昇遐 공포. 홍순목 · 李會正의 건의에 따라 衣樹로써 장의절차 진행. 척족 제거하는 인사 단행. 훈련대장 · 호조판서 · 선혜청당상에 장자 이재면 임명. 기타 어영대장에 申正熙, 금위대장에 趙義淳, 禮曹判書에 이회정 임명 (승정원일기 · 일성록 · 고종실록 · 東宮日錄 · 정치일기 · 본조기사).
- 李承宇를 告訃使, 李建昌을 書狀官으로 삼음 (승정원일기).

6월 11일

- 대원군, 尊奉儀節議定別單 의정부 결정으로 정함 (고종실록 · 정치일기).

- 군병들, 新營中에 들입. 군기고 타파. 조총·환도 탈취(승정원일기).

6월 12일

- 군병들, 다시 영중에 와서 군기고 난입. 환도 두자루·別槍 네자루·도리깨 스무개 탈취(승정원일기).
- 일본공사일행, 인천 앞바다 정박중의 英國 측량선 프라임 피시호에 구조됨(近代日鮮關係の研究·近代朝鮮外交史·韓國史最近世篇·한국사 16 참고).
- 咨文·書契 지어 義州府尹·東萊府使에게 급히 하송(고종실록·정치일기).
- 李彙林·曹炳萬·徐奭輔·趙忠植·金運盛·崔華植·金興求·柳冀大·任度準·金鐘憲·印亨純·李泰鉉·金演東·崔昌植·方希年 등 圍籬安置죄인과 李晚孫·金平默·백낙관 등 위정척사론자들 차례로 석방. 형조, 도배이하죄인 887명 석방하였음을 대원군에게 보고(승정원일기·일성록·고종실록).
- 민비, 익찬 민응식의 서울집으로 옮김. 배중은 익찬 민응식·진사 민공식(승정원일기).
- 小斂(고종실록).

6월 13일

- 의금부, 朴遇賢·孫永老·黃載顯·이만손·李源進·姜晉奎·김평묵 등 特放을 속히 거행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臺啓중에 있어 격례를 어기기 어려워 거행하지 못함(승정원일기).

6월 14일

- 민비, 林川郡守 李根永의 廣州鄉第로 옮김. 배중은 익찬 민응식·진사 민공식(승정원일기).
- 홍순목·金炳國·李裕元·姜洙·이회정·趙秉鎬 등 禮論을 들어 민

비 장례에 대하여 신중론 전개시작(고종실록·정치일기).

- 申應朝, 出仕하지 않음(승정원일기).

6월 15일

- 花房義質, 長崎 도착. 外무성에 타전 군변사실보고(近代日鮮關係의 研究·近代朝鮮外交史).
- 민비, 이조판서 閔泳緯의 驪州鄉第로 옮김. 배중은 익찬 민응식·진사 민금식(승정원일기).

6월 16일

- 參議兼外務卿 井上馨에게 花房공사의 전보 도착. 井上, 參議兼陸軍卿代理 山縣有朋 등과 협의 긴급각의 소집. 太政大臣 三條實美의 관저에서 긴급각의 열림. 대조선교섭방침논의 결론 보지 못함(近代日鮮關係의 研究). 의대 장례 질질 끄(승정원일기·고종실록).

6월 17일

- 일본내각, 긴급각의속개. 外무경 井上이 육군경대리 山縣·海軍卿 川村純義와 협의, 공사의 호위병력이라는 명목으로 조선출병 결정, 긴급각의 동의 얻음. 이에 따라 외교담판에 관한 일은 공사, 군사상 일은 군지휘관에게 일임. 전권은 井上에게 위임(近代日鮮關係의 研究·近代朝鮮外交史·韓國史 最近世篇·한국사 16참고).

6월 18일

- 淸國, 特命駐日全權公使 黎西昌이 일본의무성발표를 접하고 청국정부에 타전함으로써 군변발생사실 앎. 署理北洋大臣 直隸總督 兩廣總督 張樹聲에게 전보 접수. 장수성 접수된 전문과 자신의 의견 즉각 總理衙門에 보고(朝鮮檔·朝鮮大院君李昰應構難案). 이어 直隸天津海關道 周馥에게 명령하여 天津 체류중인 領選使 金允植·問議

官 魚允中과 접촉, 군변사실을 전하는 한편 군변배경에 대한 조선  
실정 탐문케 함. 주복과 김윤식 면담(조선대원군이하응구난안·陰  
晴史).

- 駐清美公使 영 (John Russell Young), 國務長官 프렐링 휴젠 (Frederick Theodore Frelinghuysen)에게 군함 파견해 줄 것을 청함, 뒤에 모노카시號가 조선에 오게 됨(歷史學研究 257號·適可齋紀行·한국사 16 참고).
- 成服(고종실록).

6월 19일

- 井上 馨, 橫濱에서 玄武丸을 타고 下關으로 향함(近代日鮮關係の研究·近代朝鮮外交史·韓國史 最近世篇·한국사 16참고).
- 김윤식·어윤중, 일본의 출병 제어하기 위하여 청군의 출병 필요를 역설(조선대원군이하응구난안·음청사).

6월 20일

- 여서창, 청군출동 강력히 요구 총리아문에 건의. 당시 淸州에 주둔하고 있던 幫辦山東軍武廣東水使提督 吳長慶을 天津에 초치, 병력출동준비 서두르게 함. 장수성, 총리아문의 승인 접하고 丁汝昌에게 명하여 煙臺에서 馬建忠과 합류, 즉시 조선으로 향할케 함(조선대원군이하응구난안).
- 민비, 익찬 민응식의 충주 장호원 집에 머무. 배중은 익찬 민응식·진사 민궁식·五衛將 閔泳驥(승정원일기).

6월 22일

- 김윤식, 주복에게 서한보내어 亂黨의 성격과 난당의 주동자로서 대원군 지목(조선대원군이하응구난안·음청사).
- 일본인 外務御用掛 久水三郎·어학생 高應謙三, 영국선 프라임 피

시호 편승 제물포에 내림. 伴接官 尹成鎭을 인천에 하송 商辦케 함 (승정원일기·일성록·비변사등록·고종실록·善隣始末·일본외교문서).

- 박우현·손영로·황재현·이만손·강진규·김평묵 등 특방(승정원일기).

#### 6월 23일

- 花房義質, 훈령에 따라 近藤眞鋤에게 명령하여 통리아문에 보내는 공문을 휴대 군함 金剛편으로 인천으로 항발케 함(近代日鮮關係の研究·近代朝鮮外交史·한국사 16참고).

#### 6월 24일

- 총리아문, 여서창과 장수성의 건의에 의거 청의 수륙양군 출동을 주청. 光緒帝의 재가를 얻어 北洋兵船이 부족할 경우 南洋兵船과 招商局商船을 징발 출동시킬 것을 결정(조선대원군 이하응구난안·청광서 조중일교섭사료).
- 반접관 윤성진 제물포에 도착, 久水三郎 등과 회견. 일본인 변사자 堀本소위이하 13명임과 대원군이 조정서무를 직접 처결함을 알림(일본외교문서·선린시말).

#### 6월 25일

- 청정부, 여서창으로 하여금 군란에 직접 개입하여 조정 담당할 것임을 발표.
- 장수성, 김윤식의 진술 및 난당이 왕비와 척족 13명을 살해하고 대원군이 집권하였다는 25일의 여서창의 전문 받아 일본세력 견제보다도 난당진압문제가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 이에 총리아문과 긴밀한 연락을 취하면서 吳長慶軍의 출동준비 서두르게 하고 병력도 원래 2,000명 예정하였으나 二營을 더 증가시키게 함(조선대원군이하

응구난안).

- 정여창과 마건충, 煙臺에서 합류(적가재기행).

6월 26일

- 정여창·마건충, 군함 威遠에 승선 超勇·揚威 兩艦을 이끌고 출발 (적가재기행).
- 오장경, 장수성의 명령을 받아 天津에 가 두차례 비밀회담. 파병문제와 대원군의 납치에 관하여 논의 (조선대원군 이하응 구난안·한국사 16 참고).

6월 27일

- 정여창·마건충, 인천 월미도 앞바다에 정박(적가재기행). 이 당시 일본의 金剛艦이 먼저 와서 정박하고 있었음(한국사 16 참고).
- 마건충, 도착 즉시 超勇에 同航하여 온 어윤중을 시켜 花島別將에게 사람을 보내어 탐지케 함(조선대원군이하응구난안·적가재기행).
- 청측통고를 받은 吉田외무경대리, 긴급각의에 보고. 각의에서 山縣의 견해에 따라 청측조정을 거절하기로 결정. 여서창공사를 통하여 청정부에 회답. 일본정부, 山縣의 주장에 따라 추가훈령 작성 下關에 머무르고 있던 井上을 통하여 花房 공사에게 전달(近代日鮮關係の研究·近代朝鮮外交史·한국사 16참고).
- 花房공사 일행, 近藤 영사의 뒤를 이어 明治丸에 탑승 下關출발.
- 近藤眞鋤 등 군함 金剛호에 탑승하여 앞서 인천 제물포에 도착 富平府使 金洛鎭과 회담, 영의정에게 보내는 花房공사의 書契 교부. 공사가 군란에 問情코자 호위병 인솔하고 올 것이므로 그 숙소를 준비해 줄 것을 요청(辦理公使復命書·辦理公使日乘·선린시말·秘書類纂朝鮮交涉資料·漢城遭難詩記·啓下書契冊·구한국의교문서·일본외교문서).



6월 28일

- 어윤중, 마건충에게 보낸 서신과 그 뒤의 직접 면담 통하여 대원군 亂首說 강조. 近藤眞鋤, 마건충 방문 대원군난수설 피력(조선대원군이하용구난안·적가재기행).
- 마건충, 정여창에게 부탁 署理直隸總督 장수성에게 呈書하여 만약 일본사신과 군병들의 입경 실행되면 조선정부의 곤경은 물론 청조 자체의 입장도 불리하게 될 것이라 판단 해륙군병의 급거출동 요청키로 결정(적가재기행).

6월 29일

- 정여창, 조선의 政情을 面陳하기 위하여 天津 향함(중정연표·問議紀行·청광서조중일교섭사료·적가재기행). 마건충, 일본측의 동정 살피면서 조선정부와 접촉 유지. 오장경, 登州로 돌아와 慶軍六營에 대한 출동준비의 긴급명령 내림. 정여창의 回津과 동시에 출병 실현(한국사 16 참고).
- 花房義質, 明治丸에 탑승 인천 제물포 도착. 陸軍少將 高島鞆之助·海軍少將 仁禮景範, 호위육해군을 거느리고 따라옴(通文館志·明治十五年朝鮮激徒暴動顛末期·변리공사복명서·변리공사일승·선린시말·일본외교문서).
- 마건충, 花房義質과 만나 다음날까지 두차례에 걸쳐 入京지연 공작 펴(조선대원군 이하용 구난안·한국사 16 참고).

6월 30일

- 近藤, 赤羽 등 수행원 이끌고 인천도착, 인천부사 任榮鎬의 안내로 府衙를 숙소로 정함. 花房義質, 인천부사를 통하여 수일내 호위병력 이끌고 입경하겠다는 사실 조선정부에 전달 반집관 윤성진을 出送. 영의정 홍순목, 공사가 호위병력 이끌고 입경하는 것을 반대하지는 않으나 군민의 동요 일어날 우려 있음을 지적(한국사 16 참

고).

- 美國군함 모노카시號 인천 월미도 後洋 도착(한국사 16 참고).
- 접견대관 趙寧夏· 접견부관 金弘集 인천에 가(승정원일기· 일성록) 공사를 府衙로 방문, 공사의 입경연기 요청. 花房義質, 입경 이틀 연기(한국사 16 참고).

7월 1일

- 정여창, 장수성에게 보고. 장수성, 당일 총리아문에 이 사실 보고, 다음날 청군 출동할 것임을 통고(조선대원군 이하응 구난안).

7월 3일

- 花房義質, 1개중대병력 이끌고 인천출발, 입경하여 南部 泥峴 前禁衛大將 李鍾承집을 숙소로 삼음. 일본병력, 仁禮 해군소장휘하 군함 4척·수송선 3척 및 高島육군소장 휘하 보병 1개대대 약 1,500명의 병력임. 경기관찰사 洪祐昌, 花房공사일행 楊花津 부근 伏波亭(대원군별장)에 머물게 함. 花房義質, 입경강행 (新聞集成明治編年史· 일성록· 중정연표· 변리공사복명서· 변리공사일승· 선린시말· 일본의교문서).
- 김홍집을 講修官, 李祖淵을 종사관에 임명 일본공사와 상관케 함 (승정원일기· 일성록· 비변사등록· 고종실록· 정치일기· 以政學齋日錄).

7월 4일

- 고종, 호군 조병호를 보내어 花房공사를 勞問(승정원일기· 일성록· 비변사등록· 고종실록).
- 오장경· 정여창제독 인솔한 청군, 威遠· 泰安· 拱北 등 군함 3척과 초상국 상선 振東· 日新 등에 분승하여 煙臺로 출발. 도중 풍랑 만나 일단 威海港에 기항(조선대원군 이하응 구난안.)

7월 6일

- 예조판서 이회정, 花房공사방문 대원군의 회견희망 전달(한국사 16 참고).
- 청군, 다시 출항(조선대원군 이하응 구난안).

7월 7일

- 앞서 직예총독 장수성, 방관산동군무광동수사제독 오장경에게 명하여 慶軍六營 인솔하여 조선에 가게 함. 오장경, 휘하군사를 초상국 기선에 나누어 태우고 統領北洋水師提督 정여장과 함께 군함 威遠에 탑승, 이날 南陽府 馬山浦 도착(조선대원군이하응구난안).
- 김윤식, 威遠에 편승 귀국(음청사).
- 고종, 일본공사 花房義質 집견(승정원일기).
- 花房義質, 군병이 공사관 불지르고 공사 축출한 것은 일본에 치욕을 준 것이므로 보상해 줄 것과 난후 선후책 모색하기 위하여 조선 정부와 협의코자 한다고 上奏, 이어 일본측 요구책자 고종에게 올리고 회답기한 3일내라고 함. 알현식 끝난 뒤 花房義質, 延賢閣에서 대원군과 회견. 이어 영의정 홍순목과 회견, 고종으로부터 반송된 책자 홍순목에게 전해주고 회답기한 7월 10일 정오까지로 한다고 통고(승정원일기·일성록·비변사등록·고종실록·龍湖閒錄·정치일기·본조기사·변리공사복명서·변리공사일승·선린시말·한성조난시기·일본외교문서·구한국의교문서).
- 대원군, 差備官 玄昔運을 시켜 일본측 요구책자를 반송하는 한편 강경방침을 세워 군대동원에 착수(근대조선외교사).

7월 8일

- 대원군, 마건충에게 일본의 要求條款과 자신의 親書 보내어 조속히 입경 대처해 줄 것을 간청(적가재기행).
- 홍순목, 요구사항에 대한 회답 늦어질 것이라고 花房義質에게 통보.

- 花房義質, 육군소장 高島鞆之助·해군소장 仁禮景範과 협의, 서울에서 퇴거, 인천으로 돌아가 선후책 강구키로 결정(정치일기·명치십오년조선격도폭동전말기·변리공사복명서·변리공사일승·선린시말·한성조난시기·일본외교문서).

7월 9일

- 講修官 김홍집, 伴接의 일 겸함(승정원일기).

7월 10일

- 花房義質, 近藤 영사로 하여금 1.2일간 서울에 머물러 뒷일을 처리하게 하고 인천 제물포에 도착(용호환록·변리공사복명서·변리공사일승·선린시말·한성조난시기·명치십오년조선격도폭동전말기·일본외교문서).
- 마건충, 洋槍隊 200명만을 인솔 수원에 일박한 다음 저녁에 입경 南別營에 듬. 고종, 호군 趙準永을 迎接官으로 임명. 대원군 부자, 직접 마건충을 방문 환답(일성록·비변사등록·정치일기·본조기사·중정연표·음청사·적가재기행).

7월 11일

- 近藤 영사, 인천으로 가서 청군 입경소식 보고.
- 마건충, 일본영사 近藤眞鋤에게 나아가 상견한 후 관소로 돌아옴(승정원일기).
- 영국선 엔카운터號, 인천에 정박. 부평부사 金澁均을 假承旨로 임명 勞問하게 함(승정원일기·일성록·비변사등록·고종실록·변리공사일승).
- 오장경, 경기감영에 來駐. 경기감사 홍우창을 영접관에 임명 마건충, 인천 제물포로 가서 花房義質 만나 협상재개 종용(한국사 16 참조).

7월 12일

- 제독 오장경·통령 丁汝昌, 慶軍 및 水師習流軍 인솔하고 입경. 훈련대장 이재면에게 兵 600명을 거느리고 果川驛에서 이를 영접하게 함. 홍우창·조병호를 영접관에 임명 勞問(승정원일기·일성록·비변사등록·고종실록·정치일기·본조기사·종정연표·용호한록).
- 花房義質, 전원을 御用船 和歌浦丸에 승선시키고 본국정부에 훈령 청하는 조치 강구. 마건충을 방문, 조선정부에서 전권대관을 인천에 파견하면 협상재개 용의가 있음을 통고(조선대원군이 하옹구난안·적가재기행).
- 마건충, 花房義質의 의향 확인하자 제물포로부터 상경. 때마침 입경한 정여창과 대원군 납치방법 협의. 이어 馬·丁兩人, 오장경 방문 이 문제 최종 논의(적가재기행).

7월 13일

- 오장경·정여창·마건충, 운현궁의 대원군 방문(승정원일기). 오장경, 귀로에 대원군 초청(한국사 16 참고).
- 대원군, 鄭顯德의 충고 뿌리치고 오장경이 기다리고 있는 黃仕林營에 도착. 대원군 帳內로 안내 해질녘까지 筆談. 그사이 대원군 호위군사 모두 구류. 청군, 대원군 강제로 납치. 남양부 마산포로 향함(승정원일기·고종실록·용호한록·본조기사·종정연표·음청사·청광서조종일교섭사료·적가재기행·변리공사복명서·변리공사일승·선린시말·일본외교문서·신문집성명치편년사).

7월 14일

- 정여창, 일행 직접 지휘 마산포 도착 즉시 登瀛舟艦편으로 대원군 天津에 호송(적가재기행).
- 대원군, 李鴻章·장수성·주복·袁保齡·마건충 등의 査問 받음. 오장경·마건충, 즉시 입경 조영하·어윤중에게 이 사실 密奏케 함

(한국사 16 참고).

· 오장경·정여창·마건충, 諭告 발표하여 대원군 拘置사유 밝히고 백성의 소요 금함. 고종, 접견대관 조영하를 마건충에게 보내어 군 변수습에 대한 사의 표하고 아울러 난군의 토벌 청함. 호조판서 김병국에 명하여 일본의 요구책자 제시하고 마건충과 상의케 함(용호한록·본조기사·증정연표·적가재기행·이문충공전서). 司宰直長 徐相祖를 종사관·奉朝賀 이유원을 전권대신·공조참판 김홍집을 副官·知三軍府事 金炳始를 접견대관으로 임명, 즉시 인천으로 가 花房義質과 협상케 함(승정원일기·일성록·비변사등록·고종실록·정치일기·본조기사·壬午臚錄·용호한록·통문관지·嘉梧藥略·이정학재일록·조선격도폭동전말기·변리공사복명서·선린시말·일본외교문서).

7월 15일

- 마건충, 袁世凱와 공모 대원군의 장자 이재면을 남별궁에 유치 연금. 김윤식으로 하여금 고종에게 청하여 이른바 난당의 토벌을 요청하는 글과 왕십리 일대 주민에게 알리는 告諭文을 받아오게 함. 민씨정권 부활.
- 청국의 派員隊兵에 대한 謝禮 回咨 보내기로 함(승정원일기).
- 議官 井上毅, 군함 迅鯨號에 타고 제물포 도착, 花房義質에게 외무경의 추가훈령전달. 이유원·김홍집, 인천 제물포 도착, 일본군함 比叡艦에서 花房義質과 회동 이튿날 오전 3시까지 條款상의(통문관지·가오고략·선린시말·한성조난시기·적가재기행·일본외교문서).

7월 16일

- 오장경, 마건충과 상의 諸軍을 독려, 張光前·吳兆有·何乘鰲軍 왕십리방면 배치 오장경군 梨泰院 일대 배치되어 포위 공격 170여명

체포. 오장경, 훈련도감 군졸 鄭完隣 등 11명 斬首(음청사·청광서  
조종일교섭사료·적가재기행·이문충공전서·大韓季年史).

- 김홍집, 花房義質과 比叡艦에서 2차 회담. 花房義質, 近藤·石幡  
등을 대동 김홍집과 상륙 화도별장영으로 이유원 방문, 3차 회담.  
이튿날 오전까지 조약문 작성(韓國史最近世篇·近代日鮮關係の研  
究·한국사 16 참고).
- 전무위대장 이경하·어영대장 신정희, 각각 전라도 康津縣 古今  
島·靈光郡 荏子島에 사형을 감하여 유배(승정원일기).
- 陳奏使를 보내기로 함, 병조판서 조영하를 정사·공조참판 김홍집  
을 부사·瓦署別提 이조연을 종사관에 임명(승정원일기·고종실  
록·정치일기).
- 上護軍 尹滋惠, 선혜청당상 임명. 이재면, 命召에 신병 이유로 불  
응(승정원일기).

#### 7월 17일

- 전권대신 이유원·부관 김홍집과 일본 공사 花房義質, 제물포에서  
朝日講和條約 6조와 修好條規續約 2조에 각기 조인(고종실록·용호  
한록·본조기사·대한계년사·使和記略·통문관지·구한국의교문  
서·명치십오년조선격도폭동전말기·변리공사복명서·변리공사일  
승·선린시말·한성조난시기·적가재기행·일본외교문서·신문집성  
명치편년사).

#### 7월 18일

- 고종, 중외대소신료·기로·군민·한량인 등에게 군변 후유증 가라  
앉히기 위하여 사면내리고 백성과 더불어 更始하겠다는 교서 발표  
(승정원일기).
- 謝恩兼陳奏使 즉시 출발하게 함(승정원일기).

7월 19일

- 조영하를 사은겸진주사·김홍집을 부사·이조연을 종사관으로 임명 (승정원일기).
- 고종, 候選道 魏綸先 소견(승정원일기).

7월 20일

- 마건충·오장경, 慶軍六營을 계속 조선에 주둔시켜 조선정부의 보호 요청(청광서조중일교섭사료).
- 진주사 조영하 일행, 서울출발 마산포에서 威遠艦에 승선 天津 향발(적가재기행).
- 고종, 일국을 更始하겠다고 다짐하고 훌륭한 정책이 있으면 제시해 줄 것을 부탁하는 曉諭綸音을 八道 四都 기로·인민에 내림(승정원일기).

7월 21일

- 朴定陽을 반점관에 임명(승정원일기).
- 정여창·마건충, 군함 鎮海에 타고 남양부 마산포 출발 天津으로 향함. 사은겸진주사 조영하·부사 김홍집·종사관 이조연, 同航 淸禮部에 咨文 전달하여 난병의 토벌에 대해 사례, 대원군의 방환 청함(승정원일기·일성록·통문관지·이정학재일록·정치일기·본조기사·청광서조중일교섭사료·이문충공전서).

7월 22일

- 近藤眞鋤, 양화진도착 泥峴에 들어감(승정원일기).

7월 23일

- 花房義質, 濯纓亭에 來駐(승정원일기).

7월 24일



- 고종, 오장경 접견(승정원일기).

7월 25일

- 奉常正 徐相祖, 의례를 갖추어 민비 맞아들일 것을 상소. 민비 奉迎時 提學 金炳始 · 檢校直提學 鄭範朝 · 우승지 尹相萬 · 우부승지 金學洙 등 배중하게 함. 국상 위해 설치되었던 三都監 철폐(승정원일기 · 일성록 · 고종실록 · 동궁일록 · 정치일기 · 본조기사).
- 대원군 問候兼護行使일행 출발(승정원일기).
- 고종, 錦陵尉 朴泳孝를 修信大使 · 부호군 김만식을 부사로 임명, 일본으로 향발케 함(승정원일기).
- 機務處 설치(승정원일기).
- 花房義質, 재차 입경. 議官 井上毅 입경(승정원일기 · 명치십오년조선격도폭동전말기 · 변리공사복명서 · 변리공사일승 · 선린시말 · 일본 외교문서).

7월 26일

- 영의정 홍순목 · 판중정경 李載元 · 이재면 등 민비 봉영을 위하여 동원. 兼察摠戎使 金箕錫 군병 60명 거느리고 충주로 내려감(승정원일기).
- 오장경, 哨官 陳雲龍 · 吳長純에게 명하여 병원 100명을 인솔 충주에 앞서가 왕비 시위케 함(승정원일기 · 일성록 · 고종실록 · 종정연표).

7월 28일

- 포도청, 孫順吉 · 孔致元 등 9명의 용의자 명단 일본측에 제출.
- 민비 봉영행렬 충주 출발(한국사 16 참고).

7월 29일

- 손순길 · 공치원 · 崔奉圭 등 3명 일본 外務二等警部 岡兵一 · 外務七

等屬 淺山顯藏 등 입회하에 慕華館 앞에서 梟首. 李辰學·趙應順·安興俊 등 刑配하게 함(승정원일기·일성록·비변사등록·고종실록·임오등록·정치일기·본조기사·통문관지·명치십오년조선격도폭동전말기·변리공사복명서·변리공사일승·선린시말·일본외교문서).

8월 1일

- 민비, 창덕궁으로 환궁(승정원일기).
- 이진학은 金海府, 조응순은 평안도 郭山郡, 안홍준은 함경도 洪原郡으로 정배(승정원일기).

8월 2일

- 민비봉영 稱慶 陳賀 8월 7일에 거행키로 함(승정원일기).

8월 3일

- 민비봉영을 청에 咨文으로 알리고, 일본에 書契 전하기로 하고 賚咨官으로 역관 下元圭 보내기로 함(승정원 일기).
- 일본 공사 花房義質, 東大門(興仁之門)밖 淸 大陣 방문(승정원일기).

8월 5일

- 고종, 일본공사 花房義質 소견(승정원일기).
- 고종, 각국과 수호조약의 필요성과 東道西器論으로의 정책전환 천명. 八道 四都에 명령을 내려 척양비 뽑아 버리게 함(승정원일기).
- 박영효를 特命全權大臣兼修信使, 김만식을 부사로 삼음(승정원일기).

8월 6일

- 오장경, 일본공사에게 나아감(승정원일기).

- 정여창, 일본공사 花房義質 방문(승정원일기).
- 副正字 徐光範 종사관에 임명(승정원일기).

8월 7일

- 仁政殿에서 종친문무백관 참여한 가운데 민비봉영 陳賀거행(승정원일기).
- 花房義質 귀국(고종실록).

8월 8일

- 고종. 전권대신겸수신사 박영효 · 전권부관겸수신부사 김만식 등 소견(고종실록).

8월 9일

- 고종, 淸 舍人 원세개 접견(고종실록).

8월 11일

- 고종, 오장경 진영에 행차(고종실록).

8월 16일

- 고종, 원세개 · 領官 何增珠 접견(승정원일기 · 고종실록).

8월 17일

- 고종, 호군 李載德을 問候官에 임명(승정원일기).

8월 19일

- 도배죄인 이경하 · 신정희, 위리안치시킴(승정원일기).

8월 21일

- 고종, 정제독 黃仕林 · 遊擊 何立朝 집견 (승정원일기 · 고종실록).

8월 22일

- 의금부, 김장손 · 정의길 · 강명준 · 홍천석 · 유복만 · 허씨동 · 윤상룡 · 정쌍길을 포도청에서 연행 南間에 가둠 (승정원일기).
- 庭鞠 (승정원일기).
- 이경하 · 신정희, 加棘之典을 시행하게 함 (승정원일기).

8월 24일

- 김장손 · 정의길 · 강명준 · 홍천석 · 유복만 · 허씨동 · 윤상룡 · 정쌍길 등 8명 謀反大逆不道로 結案. 군기시 앞길에서 凌遲處斬 (승정원일기 · 고종실록 · 임오대역부도죄인장손등국안 · 정치일기 · 본조기사).
- 朱先民 일행, 摠戎東營에 이주 (승정원일기).

8월 25일

- 모반대역부도죄인 김장손 · 정의길 등의 父母 · 妻妾 · 子女 · 祖孫 · 등의 나이 · 성명 · 존몰 · 거주에 관한 사항을 한성부에서 장부를 조사한 후 오부와 각 해당 도에 분부하여 연좌된 사람을 일일이 찾아내어 律에 의거하여 시행하게 함 (승정원일기).

8월 26일

- 김장손 · 정의길 등의 奴婢有無에 관하여 한성부에서 장부를 조사하여 오부 및 해당 도에 알려 일일이 찾아내어 영원히 공천에 소속시키게 함 (승정원일기).

9월 2일

- 수신사 박영효 일행, 東京에 도착 외무경앞으로 예조판서의 서계전 달 (선린시말 · 사회기략 · 일본외교문서 · 신문집성명치편년사).

9월 5일

- 일본 代理公使 近藤眞鋤, 9월 초2일 인천으로 갔다가 서울로 돌아옴(승정원일기).

9월 7일

- 주선민 · 하중주 · 朱龍海, 병대 50명 거느리고 오장경 영접차 나감(승정원일기).
- 오장경, 수원 20명 병대 50명 거느리고 大陣에 돌아옴(승정원일기).
- 인천 일본병대 40명 입경(승정원일기).

9월 8일

- 수신사 박영효 일행, 日王에게 국서 전달(사화기략).

9월 9일

- 오장경, 詣闕(승정원일기).

9월 20일

- 9월 16일에 수신사, 외무경과 회담. 배상금 50만원의 지불방법 논의. 매년 5만원씩 10년간 지불기로 결정한 바 이날 수호조규속약의 批准 완료(고종실록 · 國書啓下冊 · 계하서계책 · 선린시말 · 사화기략 · 구한국의교문서 · 일본의교문서 · 신문집성명치편년사).

9월 26일

- 고종 樂善齋에서 문후관 이재덕 · 문의관 어윤중 소견. 어윤중, 대원군 안부와 귀국여부 보고. 이재덕, 27일 새벽 출발할 것임을 보고(승정원일기).

9월 30일

- 의금부, 모반대역부도죄인 홍천석의 母와 妻, 유복만·허씨동·윤상룡 등의 妻, 정의길의 부모, 정쌍길의 부모와 처와 딸 모두 달아났다는 보고를 접하고 左右捕廳으로 하여금 각별히 조사하여 체포케 함(승정원일기).

1883년 6월 6일

- 허욱·張泰辰·장순길·金昌榮·柳興燁·張在植·李奉學, 南問에 가둠(승정원일기).

6월 10일

- 허욱·장태진·장순길·김창영·유홍엽·장재식·이봉학 등 7명 처형(승정원일기).

6월 26일

- 고종, 낙선재에서 문후관 김만식 소견(승정원일기).

12월 7일

- 고종, 문후관 소견(승정원일기).

1884년 7월 6일

- 고종, 重熙堂에서 駐津大員접견 南廷哲로부터 대원군의 안부 및 귀국 지연에 관한 사정 들음(승정원일기).

11월 2일

- 고종, 낙선재에서 謝恩兼冬至正使 김만식·부사 남정철·서장관 尹命植 접견. 부사 남정철에게 保定府의 대원군께 문후하고 올 것과 예부에 자신의 私情을 상주할 것 당부(승정원일기).

1885년 8월 26일

- 庭鞠설치. 김춘영 · 李永植 推鞠(승정원일기 · 일성록 · 고종실록 · 대역부도죄인춘영영식등국안 · 본조기사).

8월 27일

- 대원군, 청국總兵 王永勝 · 補用同知 원세개 및 수병 40명의 호위 아래 인천을 떠나 서울 도착. 知宗正卿 李寅應으로 하여금 문후케 하고 남문으로 나아가 영접케 함(승정원일기 · 일성록 · 고종실록 · 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日記 · 본조기사 · 동궁일록 · 청광서조중일교섭사료 · 신문집성명치편년사).
- 대원군존봉의례절목 마련함(승정원일기 · 일성록 · 본조기사).

8월 28일

- 김춘영 · 이영식, 모반대역부도죄로 결안 군기시 앞길에서 능지처참(승정원일기 · 일성록 · 고종실록 · 본조기사 · 대역부도죄인춘영영식등국안).

## 壬午軍亂 연구 논저 목록

### ◆ 관련 저서 ◆

- 朴殷植, 韓國痛史, 大同編譯局, 1915.
- 武田勝藏, 明治十五年朝鮮變と花房公使, 1929.
- 李瑄根, 朝鮮最近世史, 流星社書店, 1931.
- 奧平武彥, 朝鮮開國交涉始末, 1935.
- 田保橋潔, 近代日鮮關係の 研究 上·下, 朝鮮總督府 中樞院, 1940.
- 渡邊勝美, 朝鮮開國外交史研究, 1940.
- 張道斌, 韓國末年史 上·中·下, 德興書林, 1945.
- \_\_\_\_\_, 壬午軍亂과 甲申政變, 德興書林
- 李瑄根, 韓國史 - 최근세편 -, 을유문화사, 1963.
- 申國柱, 近代朝鮮外交史, 탐구당, 1966.
- 彭澤周, 明治初期日韓清關係之研究, 1969.
- 姜在彥, 朝鮮近代史研究, 일본평론사, 1970.
- 韓治勳, 韓國開港期の 商業研究, 일조각, 1971.
- 金英作, 韓末ナショナリズム 研究, 동경대출판회, 1975
- 姜在彥, 朝鮮의 攘夷と開化, 평범사, 1977.
- 白鍾基, 近代韓日交涉史研究, 정음사, 1977.
- 成大慶, 大院君政權性格研究, 成大 박사학위 청구논문, 1984.
- 權錫奉, 清末對朝鮮政策史研究, 일조각, 1986.
- 宋炳基, 近代韓中關係史研究, 단대출판부, 1987.



◆ 관련 논문 ◆

- 朴泳孝, 壬午軍亂, 新民 14호, 1926.
- 車相瓚, 壬午軍亂의 回想記, 別乾坤 3-5, 1928.
- 金瓊根, 壬午軍變史話, 新東亞 4-6(통권36), 1934.
- 三角山人, 壬午軍亂裏面秘記, 中央 3-6, 1935.
- 田保橋潔, 壬午政變の研究, 青丘學叢 21, 1935.
- 權東鎮, 壬午兵亂과 甲申政變, 學海, 1937.
- 黃義敦, 壬午軍亂, 朝光 6-2, 1940.
- 車相瓚, 壬午軍變記, 朝光 6-7, 1940.
- 田中直吉, 日鮮關係の一斷面 -京城壬午の變-, 日本外交史研究, 1957.
- 杉井之郎, 壬午にいたる日鮮關係, 國史研究 4, 1959.
- 張潤植, 壬午軍亂의 歷史的 考察, 李朝暗行御史制, 1959.
- 申基錫, 清韓從屬關係 -壬午軍亂을 전후한-, 亞細亞研究 2-1, 1959.
- 崔松鶴, 壬午軍亂의 政治社會的 考察, 경희대석사학위청구논문, 1960.
- 山邊健太郎, 壬午軍亂に就いて, 歷史學研究 257, 1961.
- 高柄翊, 穆麟德의 顯聘과 그 背景, 震檀學報 25. 16. 27合輯, 1964.
- 白鍾基, 壬午軍亂때의 일본의 對韓政策에 관한 考察, 成大論文集 10, 1965.
- 申國柱, 壬午軍亂의 性格, 趙明基博士華甲紀念論叢, 1965.
- 金鍾圓, 朝中商民水陸貿易章程에 대하여, 歷史學報 32, 1966.
- \_\_\_\_\_, 淸의 對朝鮮積極策의 機緣, 李海南博士華甲紀念論叢, 1970.
- 彭澤周, 壬午軍變と日淸兩國의 對策, 明治初期日韓關係の研究, 1969.
- 權錫奉, 壬午軍變時 淸側介入의 背景, 淑大史論 6, 1971.
- \_\_\_\_\_, 임오군변, 한국사 16, 1976.
- \_\_\_\_\_, 大院君被囚問題에 대한 再檢討 상·하, 중앙대 人文學研究 3. 5, 1976. 1977.
- 朴禮在, 壬午軍變에 관한 일고찰, 空士論文集 6, 1981.
- 崔文衡, 列強의 對韓政策에 관한 연구 -임오군란과 갑신정변을 중심

으로－, 歷史學報 92, 1981.

姜在彦, 朝鮮の開國と壬午軍亂, 季刊 三千里 30, 1982.

趙性允, 壬午軍亂의 사회적 성격, 연세대석사학위청구논문, 1983.

黒木彬文, 興亞會の壬午軍亂への對應, 政治研究 31, 1984.

林子候, 朝鮮壬午軍亂之探討, 食貨 16권 3. 4. 5. 6, 1986. 1987.

高橋秀直, 壬午事變後の朝鮮問題, 史林 72권5호, 1989.

\_\_\_\_\_, 壬午事變と明治政府, 歷史學研究 601, 1989.

板井俊樹, 日本歴史教科書の批判－壬午軍亂から下關條約まで－, 白山

朴成壽教授華甲紀念韓國獨立運動史論叢, 1991.